

제6회 건축구조경진대회 후기

우리회는 건축구조에 대한 이해증진과 미래의 건축구조 전문가 저변확대를 위해 2005년 1회 대회부터 매년 건축구조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2010년 제6회 건축구조경진대회는 2010년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중앙대학교 제2공학과 갤러리룸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40여 출품작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총20개 팀의 출품작품에 대하여 학생다운 구조시스템의 독창성 및 타당성, 구조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본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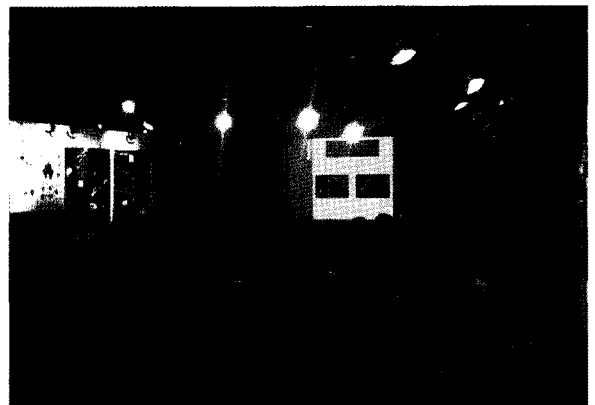
우리회 교육정보위원회 일원으로 건축구조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본 대회가 현재 구조인들과 미래 구조인들에게 축제의 장이 아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참여 학생들의 열정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으며, 작품수준도 매우 높았다. 또한 학생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우리들도 배울 것이 많았다. 아울러 매년 출품작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참여 학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대만큼 대회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구조경진대회는 우리회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매년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대회의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경진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 학생작품 외에 우리회원들의 설계작품 동반 전



〈심사위원 및 수상자 단체사진〉



〈본심사 발표 및 심사 전경〉



강 도 안 우리회 부회장
TSEC그룹 대표이사



김 대 호 교육정보위원장
(주)한울구조 대표이사



권 영 부 교육정보위원회 이사
새창구조 대표

시, 작품전시공간으로 대학교가 아닌 일반인들도 접근과 감상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장 및 집행부 심사 참가 제외, 작품발표 때와 작품에는 출신학교 명시 불가, 수상작에 대한 심사평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상금의 증액 및 구조경진대회 작품집 출간, 구조경진대회 포스터는 전년도 대상 및 금상작품으로 제작하는 방안 등을 제안코자 한다.

지금까지 구조경진대회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주관 대학교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심사위원, 우리회 임원진과 사무국 그리고 후원 및 협찬사의 노고와 지원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올해 개최되는 7회 건축구조경진대회도 모든 구조인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한다.